

ORIGINAL ARTICLE

강원도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해 살펴본 지역 간 인식 차이 연구

함광민 · 류종현^{1)*}

(社)지역정보연구원, ¹⁾강원연구원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Regions through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Survey in Gangwon-do

Kwang-Min Ham, Jong-Hyun Ryu^{1)*}

Local Information Institute, Wonju 26392, Korea

¹⁾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Chuncheon 24461,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Gangwon-do residents using a satisfaction survey. The residents were found to be most satisfied with sectors such as parks/green spaces, landscape, and public order; however, they were least satisfied with transportation, culture, sport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facilities. Additionally, among all the items in the satisfaction survey, job satisfaction was the lowest. When comparing satisfaction trends observed in the city to those of the county,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county was found to be slightly higher. This result could be attributed to young people being underrepresented in this survey in conjunction with the greater policy-level support for middle-aged people by from the government and Gangwon-do. Therefore, it would be worthwhile to create policies that primarily support young people and to also to create high-quality jobs with stable pay and employment prospects. This could minimize the outflow of youth and even encourage their inflow to similar small provincial cities. In Southern region and Seorak region of Gangwon-do, the satisfaction with gap between house price and region was low, which might be related to the increased demand for real estate throughout this area.

Key words : Residential satisfaction, Awareness survey, Residential area, Urban regeneration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70년대 도시의 과밀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서울지역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주택을 대량공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도시화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 도·농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중소도시의 활력 저하와 주거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의제이며 국민

Received 22 August, 2022; Revised 14 October, 2022;

Accepted 20 October, 2022

*Corresponding author : Jong-Hyun Ryu,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do, Chuncheon 24461, Korea
Phone : +82-33-250-1332
E-mail : rjh@rig.re.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able 1. Changes in main policies and system related to residential regeneration

Date of enactment	Name of legislation	Purpose & main contents
Dec. 31, 1977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 Promoting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of people with no house - Prescribing the items required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level of everyone such as construction/supply of housing and financing
Apr. 1, 1989	「Temporary measures act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urban low-income residents」	- Prescribing the item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condensed residential area for low-income residents -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welfare of residents
Dec. 30, 2002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ewal act」	- Promot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by improving decrepit buildings and maintaining the areas with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Jul. 1, 2006	「Special act on urban renewal promotion」	- Prescribing the items required for planning and systematically/efficiently carrying out the project for recovering the urban functions such as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in underdeveloped regions
Jun. 4, 2013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and support」	-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people like expanding the base of self-sustainable growth of city and recovering communities
Feb. 8, 2017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 Contributing to rais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prescribing special cases for efficiently maintaining abandoned unoccupied houses and vitalizing the maintenance of small-scale housing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7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을 제정함으로써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9년에는 주거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의 체계적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통합과 주거복지 향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Kim, 2019).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2014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 2개 분야의 도시재생 유형이 도입되었고, 2017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근린재생형’을 ‘주거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2021년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거지재생 활성화 정책

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주거지재생은 2010년 이후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뒷받침으로 사업도입과 거버넌스 확대, 진단과 개선을 반복해왔다. 특히 뉴딜사업을 기폭제로 정부와 지자체 단위의 재생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주거질 향상을 위한 복지차원의 사업으로 그 방향을 공공히 하고 있다(Kim, 2019). 하지만, 그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주민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급속한 양적 성장과 공공에 의한 성과위주의 사업확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조사의 부재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근거하여 광역차원에서 강원도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체감도를 증진할 수 있는 종합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강원도 균형발전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이를 통해 주거지재생 정책방안을 도출한

Table 2. Respondent properties

Division		N	%
Sum		800	100.0
Sex	Male	401	50.1
	Female	399	49.9
Age	Under 20s	7	0.9
	20s	133	16.6
	30s	107	13.4
	40s	142	17.8
	50s	163	20.4
	Over 60s	248	31.0
Residential district(Si/Gun)	Si	583	72.9
	Gun	217	27.1
Residential area	Chuncheon area	231	28.9
	Wonju area	203	25.4
	Gangneung area	181	22.6
	Seorak area	88	11.0
	South area	97	12.1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크게 사회적·물리적 변수, 가구 변수, 근린주거 변수 등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Oh, 2015; Kim et al., 2016; Lee and Park, 2022). 연구사례를 종합하면 사회적 요인은 이웃 관계와 안전성, 경제적 요인은 소득창출 기회와 주택 가격, 환경적 요인은 공원·녹지, 조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요인들이 거주자에 대한 주거만족 평가를 실시하는데 척도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강원도 주거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생애주기별 가구의 특성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Lee and Kim, 2016).

주거지재생에 관한 연구는 평가와 인식조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Kim(2019)은 주거지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발 위주에 머물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가권자가 아닌 주민제안에 의한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건축협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마을 내 조직되어 있는 기존 단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Park and Kim(2013)은 지역 간 격차의 축이 복잡·다원적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강원도, 농·어촌,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문제들을 다루는 사회 통합적인 차원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였다. Ji(2016)는 대전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어 기존 가로환경 개선, 지역 안전 강화, 공동이용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주택개량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환경개선 영역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Jeong and Moon(2020)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택 크기나 방의 개수 등의 물리적 요인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등의 입지적 요인은 전세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육환경, 치안, 소음, 사생활 보호 등의 사회적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Moon and Kim(2018)은 전북 전주시 노송동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요인을 분석하였고, Kim et al.(2013)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IPA분석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공공공간 조성을 주거지 재생사업의 계획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논하였다.

강원도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종합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

Table 3. Residential satisfaction results

Devison	Disappointed	Bad	Neural	Good	Excellent	Average	
	%	%	%	%	%	Point	
Environmental satisfaction	Traffic environment	7.5	34.8	38.8	16.5	2.4	2.72
	Culture and sports facilities	4.4	29.2	52.4	12.6	1.4	2.77
	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5.3	31.4	43.8	18.4	1.1	2.79
	Welfare facilities	4.0	28.9	51.1	15.1	0.9	2.80
	Park and green	2.4	14.2	36.6	43.0	3.8	3.32
	Landscape	0.6	5.5	26.2	49.8	17.9	3.79
Economic satisfaction	Job	14.0	44.9	35.7	4.8	0.6	2.33
	House prices	4.5	22.5	41.5	27.5	4.0	3.04
Social satisfaction	Security	1.6	4.8	39.4	46.4	7.8	3.54
	Regional disparities	4.6	41.4	39.2	13.9	0.9	2.65

보다 중요하나, 선행연구에서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지역에 국한하거나 법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지역 간 인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거주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강원도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6일 ~ 16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와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800명이며, 온라인 조사는 300명, 대면면접 조사는 500명에게 이루어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36\%$ p). 주거만족도 요인은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통환경, 문화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공원·녹지, 경관을 포함한 환경적 만족도(6문항)와 치안, 지역 간 격차를 포함한 사회적 만족도(2문항), 주택가격,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만족도(2문항)로 분류하였으며, 계속거주 의향과 이유를 보완하여 총 13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분석 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에디팅

(editing) 및 데이터 검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의 평균, 분산, 비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역 자원과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강원도를 춘천권(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원주권(원주, 횡성), 강릉권(강릉, 동해, 평창), 설악권(속초, 인제, 고성, 양양), 남부권(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의 표본은 강원도민 800명으로써, 그중 춘천권 231명(28.9%), 원주권 203명(25.4%), 강릉권 181명(22.6%), 설악권 88명(11%), 남부권 97명(12.1%)이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248명(31.0%)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63명(20.4%), 40대 142명(17.8%), 20대 133명(16.6%)의 순으로, 중장년층의 표본이 다수 차지하였다.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분야는 사무직 18.5%(148명), 자영업자 13.6%(109명), 가정주부 12.1%(97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3.2. 환경적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통환경'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18.9%,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42.3%로, 불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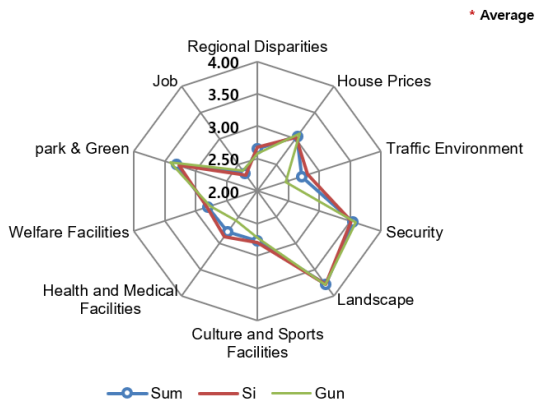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each city(Si) and county(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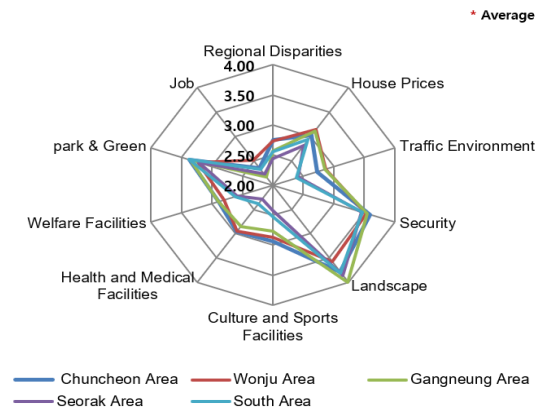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each area.

는 비중이 23.4%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72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는 2.81점, 군은 2.45점으로 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권역별 비교한 결과 원주권(2.87점)과 강릉권(2.86점), 춘천권(2.72점)은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혹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설악권(2.42점)과 폐광지역에 인접한 남부권(2.38점)에서는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원주(만중역)-강릉(강릉역)을 잇는 고속철도(KTX)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동해안 접근성이 급속히 진척된 결과로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교통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 구축이 미진한 지역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14.0%,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33.6%로, 불만족한다는 비중이 19.6%p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통(52.4%)’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77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는 2.79점, 군은 2.73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권역별 비교에 있어서 설악권이 2.42점으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그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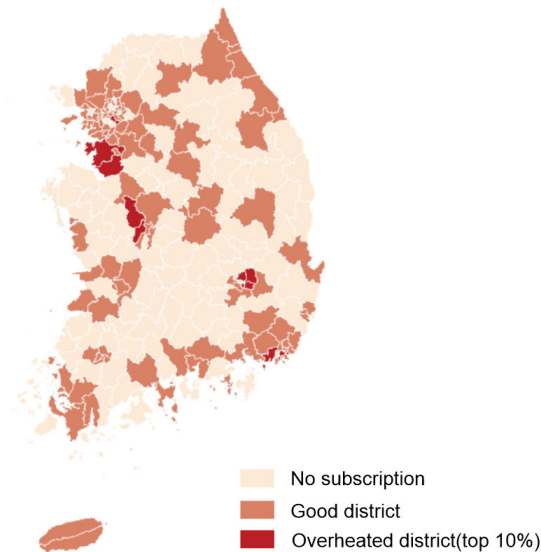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19.5%,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

율이 36.7%로, 불만족한다는 비중이 17.2%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79점으로,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는 평균치보다 0.08점 높게, 군은 0.22점 낮게 나타났다. 특히, 권역별 비교에 있어서 춘천권(2.96점)과 원주권(2.94점), 강릉권(2.85점)에 비해 남부권(2.38점)과 설악권(2.28점)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복지시설’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16.0%,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32.9%로, 불만족한다는 비중이 16.9%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8점으로, 강릉권(2.89점)과 춘천권(2.88점)이 높게, 남부권(2.62점)과 설악권(2.59점)이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문화·체육·의료·복지 시설, 즉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에 대한 만족도가 남부권과 설악권에서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원·녹지’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46.3%,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16.6%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30.2%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3.28점)보다 군(3.41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권역별 비교에 의하면 춘천권과 남부권이 가장 높은 수치(3.38점 동일)를 차지하였고, 설악권이 3.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악권은 속초, 인제, 고성 등 자연산수가 수려한 곳으로써 평점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관광객의 입장



Source: Byeon, 2018, 41p

Fig. 3. Competition rate for apartment subscription in 2017.

이 아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에서 기인 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관’의 경우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67.7%,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6.1%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61.6%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3.79점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은 강릉권(3.99점)이 가장 높고 원주권(3.5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자리’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5.4%에 불과했으며,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58.9%로, 불만족한다는 비중이 53.5%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33점이며, 시(2.31점)보다 군(2.39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군 단위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맞물려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 및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지원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원도 국비지원 시장행사업단의 수행일자리 수와 급여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Jo, 2021).

‘주택 가격’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31.5%,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27.0%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4.5%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3.04점으로,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3.02점)보다 군(3.10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원주권(3.14점)과 강릉권(3.12점)에서 높고, 춘천권(3.02)과 남부권(2.94점), 설악권(2.82점)에서 평균 이하의 수치가 확인되었다.

3.4.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안’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이 54.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39.4%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3.54점으로, 시(3.52점)와 군(3.59점)을 포함하여 각각의 권역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의 경우 Top2(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은 14.85%, Bottom2(매우 불만족 + 불만족)의 비율이 46.0%로, 불만족한다는 비중이 31.2%p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만족도 평균은 2.65점으로, 시·군별 비교한 결과 시(2.68점)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며,

Table 4. Residential satisfaction results

Division	Housing type						%
	Detached house	Apartment	Row house	Multiplex housing	Non residential house	etc.	
Detached house	42.4	35.6	6.5	9.1	0.1	6.2	
Apartment	8.1	88.9	1.0	1.0	0.2	0.8	
Row house	20.9	60.2	8.8	7.7	-	2.4	
Multiplex housing	12.8	50.6	7.3	28.3	0.1	0.9	
Non-residential house	27.3	28.4	3.0	24.9	-	16.4	
etc.	18.7	37.7	4.2	9.9	-	29.4	
Sum	20.5	62.6	3.9	7.9	0.1	5.0	

Source: Byeon, 2018, 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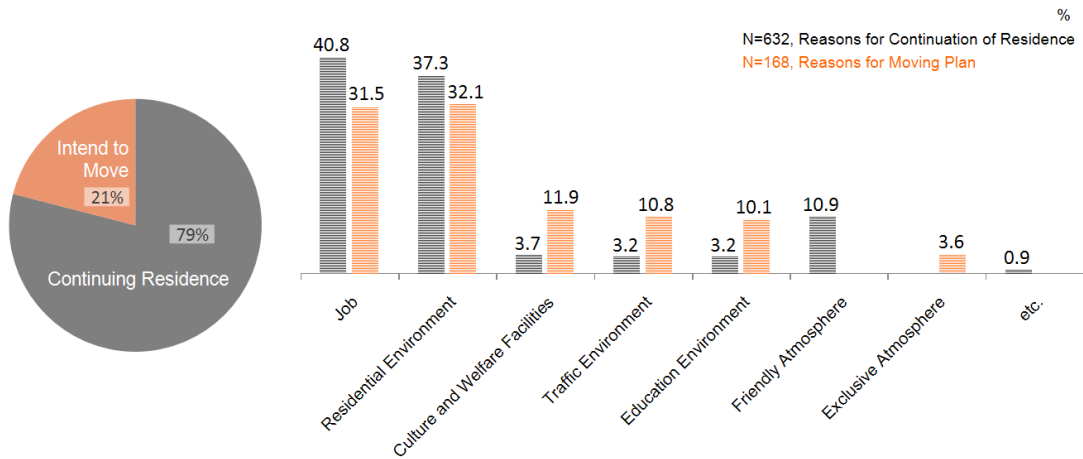


Fig. 4. Intention to reside/move and reasons.

권역별에 있어서는 춘천권(2.75점)이 가장 높게, 설악권(2.44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기 경제적·사회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부권과 설악권에서 주택 가격과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7년 강원도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면 ‘청약 없음’으로 분류된 도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등이 ‘양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사계획 중인 주택 유형에서도 아파트로 이사계획 중인 가구가 6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Byeon, 2018). 따라서 향후 지방 소도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계속 거주 의향

현재 살고 있는 강원도(시·군)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로 응답한 자의 비율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외 타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자가 13.1%, ‘도내 타지역으로 이주하겠다’로 응답한 자가 7.9%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632명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장 및 생업(40.8%)’이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37.3%),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10.9%)'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외·도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21.0%)'고 응답한 168명을 대상으로 이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족(32.1%)'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직장 이전 및 구직관계(31.5%)', '문화·복지에 대한 불만족(11.9%)'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강원도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 간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은 주거지 만족도에 있어 공원·녹지와 경관, 치안 부문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교통·문화·체육·의료·복지시설, 즉 일상에서의 편익과 연계된 생활SOC 부문에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원도 남부권과 설악권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가 나타났는데, 2019년 정부의 생활SOC사업 확충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두 사업 간의 연계사업을 강조하였음에도 주민의 체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광역 차원에서 정책 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변화에 대한 주민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한편, 설악권의 경우 자연산수가 수려함에도 저평가된 공원·녹지 부문에 있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마을에 산재하는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정원을 다수 조성하고, 조성 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일자리는 주거지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시·군의 비교 결과 군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설문 대상인 청년층 인구의 부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적 뒷받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유지 및 확대가 요구되며, 지방 소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급여와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계속 거주 의향과 이주 의향의 요인이 주거·생활환경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교통·문화·체육·의료·복지 시설 등, 생활SOC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한 주거지재생 전략 마련이 지역소멸

예방과 지역활성화를 이루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에 대한 주거지 만족도 분석은 강원도 균형 발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적 의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증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강원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REFERENCE

- Byeon, S. I., 2018, A Study on housing supply and stock management for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I), Report 18-3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jong, Korea.
- Cho, J. R., Kim, H. S., Chae, D. K., Lim, S. J., 2017, Smart CCTV security service in IoT(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8, 1135-1142.
- Jeong, H., Moon, S. H., 2020,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public Jeon-se and private Jeon-se,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07, 129-149.
- Ji, N. S., 2016,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by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in Daejeon, The Geographical Journal Korea, 50(3), 373-387.
- Jo, G. S., 2021, The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sponsored jobs for senior citizens in Gangwon-do province and the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Report 21-05,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Chuncheon, Korea.
- Kim, A. L., Koo, J. H., Lee, J. L., 2013,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elderly residents on the planned elements of the participator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6), 103-110.
- Kim, J. H., 2019, A Study on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architectural agreement for the invigoration of the residential

- area regeneration, Ph. D. Dissertation, Gongju University Gongju, Korea.
- Kim, S. H., 2019, A Study on the Living Area Zoning for the Customized Low-rise Residential Area Regeneration Project, Ph. 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O., Park, B. N., Kim, G. Y., 2016, Impact analysis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residential housing satisfaction,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64, 227-240.
- Lee, H. N., Kim, S. H., 2020,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by life cycle in Gangwon-do, Journal of Social Science, 59(1), 81-110.
- Lee, K. Y., Park, K. T., 2022, An Effect of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on quality of life,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6(2), 203-230.
- Moon, J. H., Lim, J. J., 2018, A stud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region of middle sized cities,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6(2), 141-157.
- Oh, S. C., 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ing satisfaction by house Type, Ph. D.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J., S, Kim. Y. B., 2013, Prospect on changes in recognition on regional disparity from regional disparity between Young-Honam region to regional disparity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Korean Regional Sociology, 14(2), 83-103.
-
- Principal Research Engineer. Kwang-Min Ham
Local Information Institute
space1227@gmail.com
 - Senior research fellow. Jong-Hyun Ryu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rjh@rig.re.kr